

巨文島 洞神祭儀의 실상과 지속가능성

김준옥(전남대)*

〈목 차〉

- | | |
|-----------------|---------------------------|
| 1. 머리말 | 3. 巨文島 洞神祭儀의 변동 양상과 지속가능성 |
| 2. 巨文島 洞神祭儀의 실상 | 4. 맺음말 |

1. 머리말

논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 논문은 현재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문화변동 속에서 거문도 동신제의(洞神祭儀)가 지역 주민들의 신명(神明)으로 지속해서 작동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의 일환으로 기필되었다.

해상 교통이 순조롭지 못했던 시대에 도서는 소통과 교류라는 측면에서 보면 내륙보다 생활하기에 크게 불편한 공간이었다. 그것 때문에 거기에는 주민들 사이에 내부적으로 응집된 문화가 공고하게 존재해 왔다. 특히, 동신제의는 마을의 태평과 무사 항해 그리고 풍어를 목적으로 의식을 갖추어 정기적으로 거행되어 왔는데 여기에는 민중들의 신명이 내재해 있다. 곧, 마을 구성원 모두가 신앙적 의례에 참여하고 제의적 광란에 빠져들으로써 생명의 순환 원리와 삶의 희락을 체득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오늘날까지도 어느

* 이 논문은 2013년 제4회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2013. 8. 22) 발표 자료를 고쳐 쓴 것임.

정도 신앙처럼 남아 있다.

이러한 자료들은 지난 1세기 동안 도서 민중들의 생활상을 살피고 의식을 발굴하는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되었고 그 성과는 괄목할 만하다. 원형이 복원되고, 지역 축제로 연출되고, 지정문화재로 관리되고, 콘텐츠 산업으로 활용되는 것¹⁾들이 그 결과물들이라 할 것이다. 이런 연구 성과들에서 해양 민속 문화는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 앞으로도 쉽게 멸실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가능하다.

그러나 세상은 변했고 변하고 있다. 문화변동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과학적 논리와 종교적 선교 활동이 인간 생활에 깊이 스며들면서 그나마 전승되고 있던 해양 민속 문화는, 좀 심하게 말하면, 해체되고 있다. 교통 통신과 천문학이 발달했고 문명화된 종교와 철학이 궁벽한 도서까지 유입된 결과다. 또, 내륙 문화의 비판 없는 수용 내지는 그것과의 통합, 지역 주민들의 이탈과 그로 인한 결속력 약화 등 내부적인 요인도 해양 문화 해체에 주효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보인다. 따져들면, 요즈음 복원되고, 연출되고, 관리되고, 활용되고 있는 해양 민속 문화는 상당 부분 그 원형은 물론 정체성을 잃은 창조물이라 할 것이다. 여기에서 해양 민속 문화의 지속가능성 문제가 제기된다.

거문도의 민속 문화 중 동신제의는 아직 완전히 해체되지 않았다. 근래까지 6개 마을에서 동신제의가 엄숙하고 성대하게 제행되었다. 지금은 그 중 3개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 2개 마을에서는 형식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나머지는 ‘거문도한마음어촌전통문화재현행사’로 통합되어 오히려 섬 전체의 제의로 외연이 확장되었다.²⁾ 그렇다고 거문도 동신제의는 본래대로 과연 지속할 수 있을까? 그 실상을 파악하고 변동 양상을 분석하다보면 이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 과정과 결과는 다른 도서 지역의 그것을 규명하는 데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1) 정연학, 『해양민속자원의 활용과 과제』, 『제3회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자료집 I』, 2012.7.31. 29~50면.

2) 박종오, 『주체변동에 따른 공동체 의례의 변화』, 『도서문화 제35집』, 목포대도서문화연구소, 2010. 207면.

2. 巨文島 洞神祭儀의 실상

2.1. 거문도의 生活環境

거문도는 여수와 제주 중간 수역에 위치한 절해고도이다. 고도(孤島·古島)·서도(西島)·동도(東島) 세 개의 섬을 ‘거문도’로 통칭하는데, 행정구역상으로는 여수시 삼산면에 속한다. 섬의 중심은 애초에 인구가 가장 많은 서도였으나 일본인의 잦은 출입과 영국군이 무단 점령한 거문도사건(1885년) 이래로 무인도였던 고도가 되레 번창하여 면의 행정 및 경제의 중심이 되었다. 거문도 주변은 쿠로시오 난류가 흘러, 여름철에는 고온 다습하나 시원하고, 겨울철에는 따뜻한 해양성 기후를 나타낸다. 연평균 기온은 14℃, 강수량은 1,400mm정도. 그래서 물에서는 아열대 및 난대성 식물이 잘 자라고 연안과 주변 해역은 각종 수산물이 풍부하게 서식하고 있다. 이러한 자연조건과 세 개 섬이 내해를 이룬 지형적 조건 때문에 거문도는 근래까지도 수산업이 대단히 융성하여 어항(漁港)으로서, 상항(商港)으로서, 피항(避港)으로서 호황을 누리기도 했다.

이곳에는 고인돌 및 고개더미를 비롯하여 1887년에 왜구를 방어할 목적으로 설치한 거문진(巨文鎭), 거문도 사건(1885년)의 역사공원[영국군 묘지], 일본식 건물과 신사터, 등대, 거문도벚노래 등의 유무형의 문화재가 있고 갖가지 형상의 산과 바위 그리고 해양 생활과 관련된 구비설화도 많이 전한다. 해안가는 두 곳의 백사장이 있어 여름 휴양지로 제격이고 바람과 파도가 만들어 놓은 해식애가 발달하여 천혜의 장관을 연출한다.

거문도에는 거문리, 서도리, 동도리 3개 법정마을이 있다. 자연마을은 모두 6개로 고도에는 거문마을, 서도에는 덕촌·변촌·장촌 마을, 동도에는 유촌·죽촌 마을 등이다. 세 개의 섬을 오가기 위해서 과거에는 해상 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유일했으나 근래에 고도와 서도는 다리로 연결되었고 고도와 동도를 잇는 교량도 현재 공사 중이어서 머지않아 거문도의 주된 교통로는 육상으로 바뀌게 될 것으로 보인다.

거문도 인구는 한때 15,000여 명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1700여 명의 주민이 반어 반농(半漁半農) 형태로 살고 있다. 5개 어촌계를 중심으로 가두리 양식

과 연안어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썩을 특용작물로 가꾸고 그밖에 고구마·보리·옥수수·콩 등도 경작한다. 최근에는 관광산업이 꾸준히 성장하는 추세에 있다.³⁾

2.2. 거문도 洞神祭儀의 실상

거문도는 절해의 고도라 하였거니와 이미 발견된 조개더미와 고인돌로써 신석기시대를 거쳐 청동기시대를 지나며 주민이 터를 잡고 살았을 것으로 추정한다.⁴⁾ 동한시대의 화폐인 오수전(五銖錢)이 해안에서 발견된 점, 『입당구법순례행기(入唐求法巡禮行記)』를 찬한 일본 승려 원닌(圓仁)이 이곳을 지났다는 점은 거문도가 삼국시대 이전부터 중국 및 일본과의 해상 교류의 중요한 위치였다고 하겠다.⁵⁾ 확증할 길이 없으나 지금부터 450년 전에 추계 추씨(秋氏)씨가 거문도에 최초로 입도(入島)했다고 한다.⁶⁾ 이들을 논거로 채택하기는 불충분해도 거문도의 역사성을 자연숭배와 정령숭배가 보편적 관념이었던 시대로까지 거슬러 올리기에 지나친 비약은 아닐 것이다.

원시시대, 인간은 자연과 정령의 존재를 믿고 그에 의탁하며 살았다. 그 같은 원시적 관념은 대대로 이어져 자연 환경의 악조건을 극복하면서 생존해야 하는 도서 주민들 사이에 아직도 신앙으로 남아 있다. 실제로 거문도 동신제의에는 천신(天神)의 화신인 산신(山神)과 수신(水神)의 화신인 고두리[고등어], 용, 오도리[새우], 거북이가 신격으로 등장한다. 이는 절해고도라는 지역적 여건이 자연스럽게 만들어낸 민간신앙의 전형이겠으나 그 역사성과 특수성은 멀게는 자연숭배와 정령숭배에서 분화된 천령(天靈)·산령(山靈)·수령(水靈)·조령(祖靈)·산령(産靈)·수호령(守護靈) 등 다신 체계⁷⁾와 닿아 있다 할 것이고, 가깝게는 기독교 등의 외래종교와 민족 문화를 말살하려던 일제에 끈질기게 저항하며 살아남은 고유 신앙에 연결되어 있다 할 것이다. 그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3) 拙著, 『거문도와 백도』, 대원사, 2003. 참조.

4) 삼산면지발간추진위원회, 『삼산면지』, 동아기획, 2000, 230~236면.

5) 위의 책, 242~244면.

6) 여천군, 『여천군 마을유래지』, 전일실업출판국, 1991, 376면.

7) 朴湧植, 『韓國說話의 原始宗教思想研究』, 일지사, 1985. 21면. 참조.

〈거문도 동신제의의 현황〉

마을	祭名		神名	祭日時	祭場	祭官	祭費	祭後놀이	備考
거문도 한마음 어촌 전통문 화재현 행사	고두리 영감제행 (덕촌)	고두리 영감	음력 4.15	안노루섬	7	거문도 수협 보조금	거문도 뱃노래 해상 퍼레이드 체험행사 매구	거문도 풍어제	
	풍어제 (거문)	용왕		수협 위판장					
	용왕제 (죽촌)	오도리 영감		동도해상					
	거북제 (변촌)	거북		마을앞 방파제					
장촌	당제		당산할머니	초하루	뒷산당집	1	마을 자금	형식적	
덕촌	당제		·당산할아버지 ·토지지신	삼진날	뒷산당집	1	〃	형식적	
유촌	당산제		·당산할머니 ·신목:팽나무	초하루	마을앞 팽나무	1	〃	부전	
죽촌	당제		·당산할머니 ·신목:소나무	초하루	마을 앞 소나무	1	〃	부전	

위 현황을 보면, 거문도에서 제행되었던 동신제의는 원래 6개 마을에서 8개를 거행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동신제의는 대개 지역에 따라 그 신앙하는 대상도 다르고 제의의 형태도 다르다. 그것은 일차적으로 그 명칭에 나타나는데, 당제·당산제·서낭제·산신제·장승제·숫대제·용왕제 등 43종이나 된다.⁸⁾ 이 중 거문도 동신제의의 명칭은 신령에 따라 2개로 뚜렷하게 구분된다. 산신계(山神系)를 신명(神名)으로 삼은 경우에는 당제 혹은 당산제라 하고, 수신계(水神系)를 그것으로 삼은 경우에는 풍어제이다. 덕촌과 죽촌에는 수신과 산신을 신명으로 한 동신제의가 공존했고, 다른 마을에서는 각각 1개의 동신제의가 있었다. 거문도 마을은 지척지간인데 그 명칭과 신령이 각기 다른 것도 특별하다.

8) 金泰坤, 『韓國民間信仰研究』, 集文堂, 1983. 21면.

거문도한마음어촌전통문화재현행사는 거문리 풍어제와 고두리영감제행에 변촌 거북제를 통합하고 동도 오도리영감을 신명으로 한 용왕제를 더해 거문도수산업협동조합에서 주관한다. 1986년부터 거문도풍어제 이름으로 지냈으나 2013년에는 거문도한마음어촌전통문화재현행사로 치렀다.

우선 수협에서 통합해서 주관하고 있는 거문도풍어제는 수신계 제의이다. 그 연원은 다음과 같다.

(1)옛날, 마을에 흉어가 들어 주민들이 어렵게 살아가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뜻을 모아 정성스럽게 용왕제를 지냈다. 그랬더니,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했다. 다음 날, 폭풍우가 멎은 뒤 큰 바위 하나가 마을 앞 바다 위로 둥둥 떠오르는 것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용왕이 이 바위를 보낸 것으로 믿고, 이를 거문리와 수월산 사이 안노루섬(내장도) 정상에다 신체로 모시고 제사까지 지냈다. 그 해부터는 고등어가 많이 잡혀 주민들은 걱정이 없이 살 수 있었다.⁹⁾

(2)옛날, 5척 단구의 한 청년이 죽촌 마을 앞 해안에 다 죽어간 채로 표류해 왔다. 두렵기도 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를 정성을 다해 간호했고, 그 덕으로 청년은 살아나게 되었다. 살아나서는 자신을 오도리라 소개하며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약속까지 했다.

오도리는 장사였다. 힘이 든 마을일은 혼자서 도맡아 했다. 마을 앞 다리도 짐채 만한 돌을 혼자 들어서 만들어 놓았다. 왜구들이 이 마을을 노략질했을 때는 맨손으로 싸워 적의 무릎을 꿇게 하였으며, 그들이 신고 온 금품까지 빼앗아 동네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기까지 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정중하게 대접했고, 그런 뜻에서 오도리 영감이라 불렀다.¹⁰⁾

(3)해방 직후, 거북이 한 마리가 상처를 입은 채 가짐(변촌) 해안으로 간신히 올라왔다. 마을 사람들은 그 거북이가 가엾기도 했지만 안주 삼아 잡아먹어버렸다. 그런 뒤 얼마 못 가서 마을에 번고가 생겼다. 고기가 잡히지 않은 것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때야 용왕의 사자인 거북이를 잡아먹었기 때문이라며 서둘러 이를 달래는 제사를 지내게 되었다. 그 후부터 갈치가 아주 잘 잡혔다.¹¹⁾

9) 拙著, 『여수 아오 동동다리』, 민속원, 2004, 132면.

10) 위의 책, 같은 곳.

11) 『三山面誌』, 506면.

(1)은 고두리영감제행의 연원 설화이다. 원래 이 제행은 거문리가 생기기 전 정월초하룻날 덕촌에서 지냈다고 한다. 그러다 한동안 그만두었던 것을 안 노루섬의 행정구역을 따져 거문리로 이관되어 거문도풍어제의 대표 제의가 되었다. 고두리는 한자어 ‘고도어(古刀魚, 高刀魚, 古道魚)에서 온 말로 고등어를 뜻한다.¹²⁾ 거문리풍어제는 거문리가 행정 중심이 되어 수협이 들어서면서 고두리영감제행을 기반으로 시작되었으나 그 역사성은 가장 오래되었다고 할 수 있다.

(2)는 죽촌 용왕제가 시작된 배경이다. 죽촌 용왕제는 위와 같은 일이 있고부터 오도리영감을 신명으로 마을 앞 해상에서 지냈기 시작했다. 오도리는 일본식 한자어 ‘약어(躍魚)’ 또는 ‘용어(踊魚)’의 취음으로 새우를 일컫는다.¹³⁾

(3)은 서도의 거북제 연원 설화이다. 마을에서는 해방직후 실제로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제의가 시작되었다고 하니 그 역사성은 가장 일천하다.

한편, 산신계 곧, 당제는 장촌, 덕촌, 죽촌, 유촌 등 4개 마을에서 거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장촌과 덕촌은 각각 당집을 마련하고 당제를 최근까지 성대하게 지내 왔다. 지금은 마을 원로 몇 사람만 참여하며 제후놀이는 갖지 않는다. 유촌은 마을 앞 팽나무를 신수로 삼고 이곳에서 당산제를 지냈고, 죽촌은 마을 앞 소나무를 신수로 삼고 이곳에서 각각 매년 정월초하룻날 지냈다고 한다.

그런데, 이들 거문도의 동신제의도 다음과 같이 크게 바뀌고 있다.

첫째, 산신계의 당제는 없어졌거나 형식적으로 그 명맥만 유지되고 있다. 거문도의 마을은 서도의 불탄봉과 음달산, 동도의 망치산, 고도의 희양봉을 등지고 경사진 곳에 대부분 위치해 있다. 어업이 주업이기는 하였으나 동신제 의로 보면 뒷산 산신령에 마을의 안녕을 의지하기도 했던 것 같다. 장촌에서는 당산할머니를 “영신(靈神)”으로 받들며, 덕촌에서는 이 마을에 최초로 정착한 추씨(秋氏)할아버지와 토지지신(土地之神)을 신령으로 삼았다. 죽촌은 예전에 추씨할머니를 신으로 섬겼다. 유촌 신명도 당산할머니였다는 말이 전하고 있다.¹⁴⁾ 그러나 현재 유촌과 죽촌 2개 마을에서는 완전히 없어졌고 장촌

12) 위의 책, 133면.

13) 위의 책, 같은 곳.

14) 『여천군 마을 유래지』, 388면.

과 덕촌 2개 마을에서는 형식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둘째, 제의 명칭이 통합되었다가 아예 제의성(祭儀性)이 없는 이름으로 바뀌었다. 덕촌의 고두리영감제행, 거문의 풍어제, 죽촌의 용왕제, 변촌의 거북제는 근래까지 각각 해당 마을에서 지냈다. 그러나 1986년 이래 ‘거문도풍어제’라는 이름으로 통합하여 지냈다. 2012년부터는 ‘거문도풍어제’와 ‘거문도수협전통문화행사’를 함께 사용했다가 2013년에는 거문도풍어제의 이름도 없애고 ‘거문도한마음어촌전통문화재현행사’로 치렀다. 물론, 거문도한마음어촌전통문화재현행사는 아직 고두리영감, 용, 오도리영감, 거북 등 수신계를 신격으로 삼는다. 고두리영감 신체는 안도루섬 정상에 따로 안치했으나 용왕제 신령인 용과 오도리, 거북제 신령인 거북의 그것은 따로 없다. 동신제의는 원래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고 해상안전과 풍어를 비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신명 의례였는데, 거문도의 경우 그 성격이 주민들의 통합을 위한 풍어제 재현으로 변화되었음을 제의 명칭에서부터 감지할 수 있다. 이제 풍어제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프로그램일 뿐이다.

셋째, 마을마다 달리했던 풍어제 제일(祭日)은 따뜻하고 관광객이 찾기 시작하는 봄으로 바뀌었다. 동신제의의 제일은 정월과 춘추가 가장 일반적이다. 정월은 한 해의 시작을 의미하고 춘추는 기원과 감사의 성격을 가진다. 4개가 통합된 거문도한마음어촌전통문화재현행사는 음력 4월 15일에 거행한다. 이는 특별한 세시적 의미는 없고 따뜻하고 관광객이 찾기 시작하는 시기를 고려한 것이다.

넷째, 제비(祭費)는 기관에 의존하고 있다. 과거에 제비는 보통 마을 공동 기금이나 주민들에게 공정하게 할당하여 마련했다. 동신제의 자체가 마을 공동의 기원 행사이기 때문인데 거문도에서는 마을마다 정초에 가가호호를 돌며 매구를 쳐주고 제의 기금을 마련했다. 근래에는 종전의 방법을 썼고 능력에 따른 기부금도 받았다. 그러나 거문도한마음어촌전통문화재현행사 제비는 수협이 전액 부담한다. 제비에 공동체라는 성격이 사라진 것이다. 그 대신 수협 자체가 거문도뿐만 아니라 삼산면 11개 어촌계 600여 전체 회원으로 두기 때문에 거문도만의 행사가 아니라 면 단위 전체의 행사라는 인식하에 진행되고 있다.

다섯째, 제장(祭場)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옛날 제장으로 썼던 제당(祭

堂)은 신성한 곳이었다. 당은 산정, 산의 중턱, 산 아래에 당집이나 돌무더기를 시설하거나 거목을 신수로 삼는다. 아직 장촌과 덕촌의 당은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으나 제의는 형식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장촌 제당은 서쪽 옷섬재 몰랑 참나무와 오리나무 숲 속에 있다. 최근에 새로 신축하고 ‘靈神堂’이라 편액했다. 건물 안 동쪽에 제단이 있고 그 위 감실에 “靈神神位”라 쓰인 위패가 있다. 위패 뒤의 양쪽 벽에는 “天無熱風 海不揚波”라는 주련(柱聯)이 붙어 있다. 제단 우측에는 청색 적색 천으로 지어진 산신의 옷이 바구니에 담겨있으며 좌측에는 짚이 담긴 단지가 있다. 덕촌은 뒷산 중턱에 시멘트로 만들어진 2칸 당집이 있다, 1칸은 제실이고 1칸은 부엌이다. 제실 내부에는 제단이 만들어져 있는데 3층 시멘트 제단이다. 제단 위에는 “開拓秋氏之神位”, “土地之神位” 두 위패가 있다. 제단 양쪽 구석에는 짚이 들어 있는 단지가 놓여 있다. 단지를 한지로 덮고 그 위에는 판자 덮개를 얹어 둔다. 제사를 지낼 때 묵은 짚은 꺼내고 새 짚을 넣어 두는데 짚이 상했으면 그 해 마을이 불길하다고 한다. 거문도한마음어촌전통문화재현행사 중 고두리영감제행은 신체가 있는 안노루섬에서, 풍어제는 수협위판장에서 치르며, 용왕제는 죽촌 방파제 앞 해상을, 거북제는 서도 방파제를 제장으로 활용한다. 고두리영감의 신체는 안노루섬에 2층 탑 모양의 제단 위에 좌대를 만들고 그 위에 안치했다. 제장으로 활용되던 당은 현재 신성성이 거의 사라진 상태이며 오히려 종교적 갈등의 공간이 되고 있다.

여섯째, 제관(祭官)은 기독교 교인이 아닌 마을 대표자가 맡는다. 보통 제관은 제주(祭主)·축관(祝官)·헌관(獻官)·집사(執事) 등으로 구성되는데 가화가 없고 집안에 출산이나 부정한 일이 없는 원로 중에서 정초나 행사 전에 선정한다. 제관으로 뽑힌 사람은 동제를 지내기 전에 제당을 깨끗이 하고 제물의 준비하면서 금기하는 것은 다른 지역과 한가지였다.

그러나 얼마 전까지 입도주 추씨의 뒤를 이은 집안에서 맡았던 장촌과 덕촌에서는 현재 마을 이장이 담당하고 주민의 협조를 받는다. 섬 전체 행사로 거행되는 거문도한마음어촌전통문화재현행사 제관은 마을에서 선발한 6명의 대표자가 제관으로 참여한다. 아무리 생기복덕한 주민이라 하더라도 기독교 교인은 제관으로 참여하지 않는다.

일곱째, 제행 과정(祭行過程)은 유교식 의례를 따르고 있다. 그것도 약식이

다. 옛날, 거문도 동신제의의 제행 과정은 거의 무교식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유례식이다. 유례식은 진설(陳設)→강신(降神)→진찬(進饌)→초야종헌(初亞終獻)→유식(侑食)→합문(闔門)·계문(啓門)→사신(辭神)→소지(燒紙)→철상(徹床)·음복(飲福)의 순서로 진행한다. 거문도한마음어촌전통문화재현행사는, 제관들이 제일 전날 함께 밤을 보낸 다음 새벽에 어선으로 안노루섬 정상으로 가서 진설을 한 후에 고두리영감제를 지낸다. 다시 거문도수협 앞에 마련된 제단에서 풍어제를 지낸다. 이어 동도 앞바다에서 어민들의 안전 조업과 어로 중에 세상을 떠난 수중고혼을 달래는 용왕제를 역시 유교식 절차에 따라 지내는데 마지막으로 작은 띠배에 제물로 차린 돼지머리를 실어 바다에 띄운다. 거북제는 고두리영감제행과 용왕제가 끝나면 서도 방파제로 돌아와서 지낸다. 장춘과 덕춘 당제는 유례식조차도 소멸 직전에 있다.

여덟째, 제후놀이는 축제화되었다. 거문도 4개 당제의 제후놀이는 소멸되지 오래되었다. 다만, 거문도한마음어촌전통문화재현행사는 음복과 더불어 <거문도 뱃노래>와 해상 어선 퍼레이드 그리고 매구 순서로 진행된다. 옛날, 거문도에서도 육지에서와 마찬가지로 동신제의 후에 매구를 쳤다. 또, 가가호호 방문을 하며 지신을 밟았다. 이 때 그 집에서는 촛불을 켜 놓은 상에다 쌀과 돈을 올리고 놀이 뒤에 음식은 내놓는다. 현재는 이런 신명한 놀음은 사라지고 없다.

3. 거문도 동신제의의 변동 양상과 지속가능성

3.1. 洞神祭儀의 변동 양상

인간의 지혜가 발달하기 전의 산물이라고는 하지만 도서의 동신제의는 마을의 변영과 주민의 무사태평 그리고 해상 안전과 풍어를 비는 신앙적 의식이었다. 그래서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신앙적 의례에 참여하고 제의적 광란에 함께 빠져들었다. 거문도에서도 4개 마을에서 산신에게 마을의 안녕과 주민들의 무사태평을 빌었고 4개 마을에서 용신의 화신들에게 해상의 안전과 풍어를 빌었다.

그러나 현재 그런 동신제의는 과거와는 사뭇 달라졌다. 여수의 경우, 30년 전까지 60여 마을에서 동제를 거행했으나¹⁵⁾ 현재는 그중 1/3만 시행되고 있다.¹⁶⁾ 그것도 상당부분 옛날처럼 온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집단적 행사가 아니라 형식적이거나 지자체 등 관의 지원과 도움으로 그 명맥만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앞에서 밝혔듯이, 거문도에서도 제의 자체가 통합되거나 그 이름만 갖고 있고 없어진 것만도 2개 마을이다. 이런 변화는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현재 그 변동 실상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신앙성이 희박해졌다.

동신제의는 종교적 체계를 완전히 갖추었다고 할 수 없는 인간의 정신문화 양식의 하나이다. 그럼에도 신앙으로 간주되는 것은 인간이 해결하기 불가능한 문제에 대하여 초월적 존재에게 위탁하는 행위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신당은 동신제의의 성역이었다. 옛날에는 누구든 당으로 도망치면 잡지 못할 정도로 접근조차 금기시했던 공간이었다.¹⁷⁾ 지금도 신당에는 신격이나 위폐를 안치하고 성스러운 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당집이 없는 마을은 수령이 높은 소나무나 느티나무 같은 거목을 신수로 정하여 이를 해치는 것을 금기하였다. 간혹 돌무더기도 신당이 된다.

동신제의를 주재했던 무(巫)는 과거에 천지신뿐만 아니라 죽은 조상이나 영웅 등 수많은 신령과도 소통할 수 있는 영험자로 인정을 받은 사제였다. 무당은 인간의 길흉화복을 신에게 기원할 목적으로 제물을 바치며 그 제의를 주재했고 굿도 했다. 무당이 굿을 할 때 민중은 무아지경에 빠져들어 신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신명을 도모했던 것이다.

제관으로 선정되면 일체의 재계와 금기 같은 성스러운 행위는 필수였다. 제수를 마련하면서 부정을 탄다 해서 타인과 대화를 하지도 않았고 상인과 흥정도 하지 않았다. 마음과 몸을 깨끗하게 해야만 신으로부터 노여움을 사지 않고 발복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15) 여천군, 『여천군의 문화유적』, 조선대학교국사연구소, 1988. p.290. 참조.

16) <http://yeosu.grandculture.net/>

17) “諸國邑各以一人主祭天神 號爲天君 又立蘇塗, 魏志曰 諸國各有別邑 爲蘇塗. 諸亡逃至其中 皆不還之 建大木以縣鈴鼓 事鬼神” 『東夷傳』, 『後漢書』

이러한 형태는 그대로 신앙의 모습이라 할 것인데 거문도 동신제의에서 이런 신앙의 모습은 이제 멸실의 과정에 있다. 장촌과 덕촌에는 당집이 있어 그곳이 성역이라는 관념은 아직 조금은 남아 있으나 유촌의 신수였던 마을 앞의 소나무는 베어져 버렸고 죽촌의 신수였던 팽나무는 주위에 건물이 들어서 버렸다. 신당 신앙은 퇴색되고 신수 신앙은 아예 사라져 버린 것이다. 마을 수호신으로 민중들의 신적 대상이었던 벽수가 오늘날 신앙성을 상실하고 “못된 놈, 바보”로 전락해 버렸듯이,¹⁸⁾ 당집에 봉안된 신격들과 마을 앞 신수는 미신이요 속신으로 인식된 지 오래되었다. 거문도한마음어촌전통문화재현행사 때 안노루섬, 수협 위판장, 죽촌 해상, 서도 방과제를 제단으로 사용하여 유교적 절차에 따라 의식이 진행되고 있지만, 고두리영감 신체가 안치된 안노루섬을 제외하면 벌써 제장으로서 성역을 벗어났다. 거문도한마음어촌전통문화재현행사는 섬 전체의 행사로 통합된 뒤에 동신제의의 성격을 탈피하고 주민의 통합에 목적을 두고 축제처럼 치른다. 독립된 단결판이 있을 정도로 성했던 삼산면 무는 거문도에서 그 흔적조차 찾기 어렵다. 제관은 엄격한 금기가 사라진 대신 기독교 교인이 아니어야 한다는 새로운 금기만 지키면 괜찮다.

이처럼, 거문도 동신제의는 그 신앙성을 잃어가고 있는 처지에 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으나 그 중 가장 절대적인 것 중 하나는 기독교의 영향일 것이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여기서 배제하기로 한다.

둘째, 참여하는 민중이 없다.

민중은 동신제의의 자발적 주체였다. 그러나 오늘날 그 주체였던 도서 민중이 없다. 수산업의 퇴조현상 때문이다. 우리나라 수산업은 그 비중이 국내 총생산(GDP)의 0.31%에 불과할 만큼 낮은데다가 수산업도 70여만 명뿐이다.¹⁹⁾ 거문도도 호황일 때는 15000여명의 인구가 상주하며 수산업으로 고소득을 올렸으나 현재는 어족 자원의 고갈과 어려운 생활환경 그리고 낮은 소득 등으로 1700여명까지 줄었다. 이제 거문도는 거문리를 제외하고는 마을마

18) 벽수가 신성성을 상실하고 바보나 치한으로 등장한 예는 판소리 <가루지기타령>, 한수산의 소설 <사월의 끝>, 부도덕한 장씨 원님 설화 등에서 찾을 수 있다.

19) 통계청 자료 참조.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1316.

다 70세는 젊은이에 속한다. 4개의 초등학교는 1개로 줄어 겨우 70여명이 재학하고 있고 중학교 학생도 20여 명뿐이다. 앞으로도 공도 정책(空島政策)을 쓰지 않아도 도서는 비어질 정도로 해양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인구 이탈 현상은 곧 동신제의의 민중성에 그대로 반영된다. 앞에서 밝힌 것처럼 장촌과 덕촌은 이장 중심으로 마을 원로 몇 사람만 음식 몇 가지만 장만하여 신당에 올라가 예를 표하는 것으로 대체되었다. 제후에 매구로 신명을 도모했던 민중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거문도한마음어촌 전통문화재현행사는 거문도수협이 거문도뿐만 아니라 이웃 초도와 손죽도 등 11개 모든 어촌계의 도움을 받고 있으나 민중 동원이 여의치 않은 편이다. <거문도벚노래> 이수자들과 소형 선박을 가진 선주들은 그 대가를 받고 출연한다. 동신제의의 주체였던 거문도 민중은 제의에 대한 흥미를 잃고 관심도 없어진 결과이다.

사실, 동도의 유촌 및 죽촌의 동신제의가 없어진 것은 상당 부분 사람과 경비 때문으로 파악되고 장촌과 덕촌의 당제가 그 형식만 유지된 것도 또한 마찬가지로 생각된다. 주민의 평균 연령이 초고령화로 치닫고 있고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면서 동신제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도서나 내륙을 막론하고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고 판단된다. 고등중교의 유입과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충격 속에서 동신제의는 그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으며 그 주체는 주민이 아니라 기관이나 기획사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연희적(演戲的) 기능이 강화되었다.

동신제의의 제후놀이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어는 아마 신명일 것이다. 신명이라는 말은 ecstasy(憑依)나 orgiasticstate(난장상태)라는 서구적 표현이 가장 가까울 것인데²⁰⁾ 이는 종교성과 예술성을 내포한 신바람과 통하는 말로서 한국 고유사상의 하나로 여겨진다.²¹⁾ 동신제의에서 굿판을 벌이는 것은 환웅, 수로, 혁거세가 강임할 때의 환희나 제천의식에서 보여준 ‘군취가무(群聚歌舞)’나 ‘희락(喜樂)’의 투영일 것이다. 제후에 참가자가 집단적으로 신바람을

20) <http://terms.naver.com/entry.nhn?cid=1627&docId=560164&mobile&categoryId=1627>.

21) 양건열 외, 『문화정체성 확립을 위한 정책 방안 연구』, 한국문화정책개발원, 2002. 101면.

피우는 것은 제의적 연출이면서 동시에 공동체 구성원 전체의 사회적 일체를 도모하는 일이다. 또, 민중의식의 발산이라는 측면에서도 대단히 긍정적으로 인식된다. 참가자가 함께 한판이 되어 어울려 감정적 융합을 이루는 신명이야말로 동신제의의 본질의 하나일 것이다.

바로 앞에서 지적했듯이, 장촌과 덕촌 동신제의는 이장 중심으로 형식적으로만 제행되고 있어 제후놀이 자체가 없어졌으니 신명이라는 본래의 취지는 이미 상실되었다고 본다. 현재 연행되고 있는 거문도한마음어촌전통문화재현행사는, 형식은 풍어제이나 내용은 축제이다. 당연히 군중이 집신하는 것 같은 광란의 신명은 없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다.

거문도한마음어촌전통문화재현행사는 <거문도뱃노래>가 시연되고 어선이 동원되어 해상퍼레이드가 펼쳐진다. 거문도에서 400여 년 전부터 전승된 <거문도뱃노래>는 버거운 노동의 고달픔을 달래며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불렀던 어로요이다. 1972년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되어 장촌에 전수관을 두고 관리 전승되고 있다.²²⁾ 여수에서 축제 때마다 동원이 된다. ‘술비소리’를 앞세우고 어선이 떠나기 전 용왕에게 풍요를 기원하며 부르는 자진모리장단의 ‘고사소리’, 노를 저어가면서 부르는 늦은 자진모리장단의 ‘늦소리’, 그물을 당길 때 부르는 ‘월래소리’, 고기를 퍼 올릴 때 부르는 세마치장단의 ‘가래소리’, 배가 가득 차서 돌아올 때 부르는 ‘썰소리’를 차례로 부른다. 선소리꾼이 두 장단을 메기면 어부들이 ‘에이야라 술비야’ 하고 받는다. 해상퍼레이드는 오색 깃발을 단 소형선박이 내해에서 동원되어 섬 주위를 한 바퀴 돌고 다시 돌아온다. 물론 배 안에는 용신을 달래는 사물놀이가 펼쳐진다.

이처럼 거문도한마음어촌전통문화재현행사는 풍어제 제의 형식을 갖추지만 민중의 자발적 참여가 아니라 임금을 받고 동원되어 연출된다는 점에서 지역 주민의 신명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다. <거문도뱃노래> 전수자들도 이미 고령에 접어들어 후계도 불확실하다. 해상퍼레이드 참여를 요청 받은 선주들도 협조하기 난감해 한다. 그래서 저인망 체험이나 전통 때배 및 전마선 승선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가미되고 있는 실정이다. 관광객을 고려한 행사가 된 것이다.

22) 拙稿, 『여수 구비전승의 양상과 그 특징』, 『국어문학』 35, 국어문화회, 2000, pp 205~207면.

3.2. 동신제의의 지속가능성

동신제의는 민중의 신앙적 행위이다. 민중은 역사의 직접적인 주체이면서도 주인이 되지 못한 사회적 실체로서 항상 정치적·문화적·경제적 지배관계에서 종속계급·피지배계급에 속해 왔지만²³⁾ 동신제의에 관한 한 그들은 생산과 소비의 확실한 주체였다. 군왕이 곧 신령의 화신으로 인식되던 제정일치 시대에, 민중은 이를 아무런 비판 없이 보편적 관념으로 자각하면서 자발적으로 이에 참여했다. 사회적 이념이 지배층과 피지배층 간에 일치하지 않았던 봉건사회에서도 민중은 갈등과 투쟁으로 지배자로부터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고 또 다른 민간신앙을 생산하고 소비도 했다. 민중은 지배적 이데올로기의 대척점에서 그들의 신앙을 전승하여 왔던 것이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참여하여 공동체 정신을 발휘하면서 공동으로 의례를 치르고 공동으로 소원을 기원하는 동신제의에서 이는 분명히 확인된다.

그러나 오늘날 민중 신앙이었던 거문도의 동신제의가 멸실의 위기를 맞고 있다. 앞에서 확인한 것처럼, 동신제의의 본질인 신앙성이 희박해지고 민중성이 결여된 대신 부차적이었던 연회성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동신제의는 종교적, 사회적, 예술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바²⁴⁾ 이중 마을의 안녕과 주민들의 염원을 기원하는 종교적 기능이 가장 주된 것임은 주지하는 바이다.

현대에도 민간신앙이 민간층에 살아 있는 현재의 基層宗教로 자리 잡고 있는 데에는 다음의 두 가지 원인을 들 수 있다. 첫째는 민간신앙이 고대로부터 민족적 종교의 기반을 가지고 民族共同體 속에서 생활을 통해 전승되어 오고 있는 그 歷史性과, 다음은 불교를 비롯한 유교, 기독교 등의 외래종교가 三國時代로부터 계속 밀려들어 왔지만 그것은 언제나 소수 상류층의 高級宗教로 孤高한 것이어서 생활화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민간인의 意識構造와는 별개의 종교적 차원의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라 보아진다. 그래서 민간신앙이 현대에도 민간층의 유일한 생활적 종교로 庶民的 意識構造에 합치되는 종교적 기능을 갖게 된 것이라 보아진다.²⁵⁾

23) <http://terms.naver.com/entry.nhn?cid=272&docId=1530057&mobile&categoryId=272>

24) 박계홍, 『우리 민속의 맥락과 현실 의식』, 민속원, 1998, 56~58면.

25) 金泰坤, 앞의 책, 333면.

위 인용문은, 민간신앙은 현대에도 민간인의 생활적 종교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전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만약, 민간신앙이 종교적 기능을 상실했다면 그 지속성은 유지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의미로도 풀이될 수 있다. 이 지적은 적어도 반세기 전에만 해도 고견이었을 것이다. 그 때는 동신제의에서 신령, 신격, 신체가 거처하는 영역이 마련되고 무와 같은 사제는 존엄한 형식에 따라 의례를 집전했던 것은 상식이었다. 또, 역사적으로 특별한 인물뿐만 아니라 높은 산, 오래된 나무, 거대한 바위 등에 신격을 부여하고 신령의 화신으로 숭배하는 일도 보통이었다. 그래서 그 지속성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이다.

거문도의 동신제의는 아직 그 종교적 기능이 완전하게 없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제의 자체가 상실의 과정에 있다고 판단해도 될 것 같다. 그 일차적인 요인은 앞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역시 신앙성이 희박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동신제의 곧 마을신앙은 마을굿이라는 말로 통용되고 있다. 여기다가 도서에는 민중이 없고 또 연회적 기능이 강화되었다는 것도 동신제의의 해체를 가속시키고 있다고 판단된다. 섬에 민중이 없는 것은 앞에서 이미 지적했거니와 남아 있는 주민들도 동신제의에 대한 의식이 달라지고 있다.

민중은 자신들이 민중이기를 거부한다. 민중이라는 어휘에는 하층이라는 계급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 곧 어민, 농민, 노동자, 무식, 가난 등으로 상기되는 속성을 지녔다. 그래서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소득이 상승하면서 누구도 자신이 여기에 예속되었다고 생각지 않는 경향이 있다. 또, 외부와의 교류가 빈번해지고 기독교와 같은 고등종교와의 접촉이 심해지면서 아무리 밀바닥에 퇴적된 신앙심이라 하더라도 변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된다. 거문도 동신제의가 그대로 지속될 수 없는 이유이다.

동신제의가 종교적 기능이 가장 우선하고, 예술적 기능과 사회적 기능이 그에 수반된다고 보았을 때, 거문도 동신제의가 이미 축제로 변화했다는 것에서 그 지속가능성 또한 부정적으로 판명할 수밖에 없다. 축제[festival]는 종교 의례에 그 기원을 두고 있으면서도 놀이와 상업화에 방점을 둔다.²⁶⁾ 거문도

26) 김영순·박지선, 『축제와 문화』, 인하대학교출판부, 2004., 16~22면. 참조.

한마음어촌전통문화재현행사는 분명 풍어제에 근거를 두고 있으나 실제 그 내용은 상업화와 놀이화를 지향하는 프로그램이 지배하고 있다. 완전히 축제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축제는 재미있는 프로그램으로 관객을 유인하여 지역 상품을 많이 팔고 지역 경제 활성화만 되면 그만이다. 거문도한마음어촌전통문화재현행사도 그렇다. 그러니 거문도 동신제의의 지속가능성은 보장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4. 맺음말

지금까지 절해고도 거문도의 동신제의의 실상을 파악하고 그것이 도서 주민들의 신명으로 과연 지속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거문도 6개 마을에서 8개를 거행되었던 동신제의는 현재 2개 마을에서 형식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4개 마을의 풍어제는 ‘거문도한마음어촌전통문화재현행사’ 1개로 통합되어 진행되고 있는 실태를 파악했다. 이 과정에서 거문도 동신제의 본래의 기능과 형태가 변동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곧, 거문도 산신제의 동신제의는 멸실 직전에 있고 풍어제 성격의 동신제의도 주민들의 통합을 목적으로 거문도한마음어촌전통문화재현행사가 되었다. 거문도 동신제의는, 신앙성은 이미 희박해졌고, 자발적으로 참여한 민중이 없으며, 종교적 기능보다 되레 연희적 기능이 강화된 것이다.

동신제의는 고대 사회에서 연희되었던 제천의식에 뿌리를 두고 전개되어 왔고 오늘날의 축제는 제천의식에서 기원하여 동신제의를 거친 문화현상으로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각종 축제에서 실제로 연희된 프로그램에서 이런 사례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제행 과정과 제후놀이가 공연예술로 재탄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동신제의의 그 끈질긴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동신제의의 지속가능성은 제의 기능, 제의 주체, 제의 신앙성, 제의 형태, 제의 반복성, 제의 참여와 발전에 대한 노력의 정도 등을 종합한 결과로 판단해야 한다. 오늘날의 축제가 공연예술을 이 기준에 적용시켜 보면 과거의 제천의식이나 동신제의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곧, 자발적 군취가무나 희락

같은 신명이 없다. 성스럽고 강력한 사회통합력을 가진 신앙성은 오히려 종교적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 주체는 민중이 아니라 기관의 장이요 예술가의 몫이다. 공동체보다 상업성을 지향한다. 거문도 동신제의에서 이를 확인했다. 따라서 거문도 동신제의의 지속가능성은 부정적으로 귀결된다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영순·박지선, 『축제와 문화』, 인하대학교출판부, 2004. 16~22면. 참조.
- 金泰坤, 『韓國民間信仰研究』, 集文堂, 1983. 21면.
- 박계홍, 『우리 민속의 맥락과 현실 의식』, 민속원, 1998, 56~58면.
- 朴湧植, 『韓國說話의 原始宗教思想研究』, 일지사, 1985. 21면 참조.
- 박종오, 『주체변동에 따른 공동체 의례의 변화』, 『도서문화 제35집』, 목포
대도서관문화연구소, 2010, 207면.
- 삼산면지발간추진위원회, 『삼산면지』, 동아기획, 2000, 230~236면.
- 양건열 외, 『문화정책성 확립을 위한 정책 방안 연구』, 한국문화정책개발
원, 2002. 101면.
- 여천군, 『여천군마을유래지』, 전일실업출판국, 1991, 376면.
- 여천군, 『여천군의 문화유적』, 조선대학교국사연구소, 1988. 290면. 참조.
- 정연학, 『해양 민속 자원의 활용과 과제』, 『제3회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자료
집』 I, 2012. 29~50면
- 拙稿, 『여수 구비전승의 양상과 그 특징』, 『국어문학』 35, 국어문화회,
2000, 205~207면.
- _____, 『거문도와 백도』, 대원사, 2003. 참조.
- _____, 『여수 아오 동동다리』, 민속원, 2004, 132면.
- 『후한서(後漢書)』 『동이전(東夷傳)』
-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1316.
- <http://terms.naver.com/entry.nhn?cid=1627&docId=560164&mobile&categoryId=1627>.
- <http://terms.naver.com/entry.nhn?cid=272&docId=1530057&mobile&categoryId=272>

【국문초록】

이 논문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문화변동 속에서 거문도 동신제의(洞神祭儀)가 기능적으로 주민들의 신명(神明)으로 지속해서 작동될 수 있을 것인가에 주목하고 기필되었다.

신석기시대 및 청동기시대의 유물이 출토될 정도로 장구한 역사를 간직한 거문도는 여수와 제주 중간 수역에 위치한 절해 고도(絶海孤島)이다. 일찍이 한중일(韓中日) 간 해상 교류의 길목이기도 했으며, 근래까지 어항(漁港), 상항(商港), 피항(避港)으로서 호황을 누렸다. 근현대에는 러시아, 일본, 영국, 미국 등으로부터 침범을 당하기도 했다.

이 같은 환경 속에서, 거문도는 6개 마을이 형성되었다. 6개 마을에서는 모두 8개의 동신제(洞神祭)가 거행되었는데, 현재는 2개 마을에서 형식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4개 마을 제의는 ‘거문도한마음어촌전통문화재현행사’로 통합되었다. 그 변동양상은 희박한 신앙성(信仰性), 결여된 민중성(民衆性), 강화된 연희성(演戲性)으로 요약할 수 있었다. 이로 말미암아 거문도 동신제의의 기능적 지속가능성을 ‘부정적’으로 판단했다. 다만, 옛 의례(儀禮)가 지역축제 프로그램으로 활용되고 대중예술로 재창조되고 있는 현상을 볼 때, 거문도 동신제의는 그 기능을 이탈한 변동의 가능성은 있을 것이다.

이 연구 결과는 거의 모든 도서(島嶼) 동신제의의 지속 가능성을 규명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거문도, 동신제의, 지속가능성, 부정적

【Abstracts】

A study on the Situation and Sustainability of the Rituals for the Village Guardians in Geomun-do

kim, junok

This research is prepared wondering whether the rituals for the village guardians of Geomun-do could remain as guardian spirits of the residents facing a rapid change of culture and lifestyle.

Geomun-do is a remote island located intermediately between Yeosu and Jeju thrived until recently as a port for fish, commerce or retreat. Geomun-do has been carrying the relics since the Neolithic and Bronze Ages and had once played a major role for marine trades among Korea, China and Japan.

Among 8 sorts of rituals respective for the guardians of 6 Geomun-do towns, ritual services are being carried out these days only superficially in no more than 2 towns and the rituals of the other 4 towns have been combined as a 'Geomun-do one mind fishing village traditional culture revival event' which is analyzed due to the shallow piety, lack of popularity or insufficient entertainment factors. Thus the rituals for the village guardians in Geomun-do are diagnosed to be unsustainable with function. It must be, however, premature to conclude that the rituals have been completely forgotten as the ancient ritual services are conducted yet in

some areas for the local festivity.

This research is expected to be utilized for the examination of the sustainability of rituals in almost all islands.

Key word : Geomun-do, Village Guardians, unsustainability

이 논문은 2013년 12월 27일에 투고되었으며, 2014년 1월 27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4년 2월 7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